

경북도, 한 달간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목소리 듣는다

내일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 열려
행정통합 필요성·추진경과 설명
질의응답 통해 궁금증 현장 해소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7일부터 한 달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주민 설명회는 11월 7일(목) 오전 10시에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행정통합에 관심있는 주민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설명회로 운영한다.

설명회에서는 도 관계자 및 전문가



경북도청 전경.

가 행정통합에 대한 경과와 내용, 쟁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운영하여 참여자의 궁금증이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부권 설명회

는 경산에서, 북부권 설명회는 안동에서, 서부권 설명회는 구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모든 권역의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브로슈어 제작·배포, 언론 매체를 통한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와 설

명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여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별 주민 설명회와 함께 도에서는 경제산업 분야, 건설개발 분야,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신도시, 통합신공항 지역 등에는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인 만큼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내용을 주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건전한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스페인서 스마트도시 성과 홍보

부산시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 참가해 부산의 스마트 도시 비전과 사업 추진 성과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SCEWC는 지난 2011년부터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도시 혁신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올해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130여 개국 1100개 이상의 기업·도시가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에 시는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통합한국관 내 부산관을 운영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시

지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최상위’

대구시는 2024년 지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5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률, ②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 제출률, ③ 중대한 결함 보수 및 보강 적기 조치 기한 준수율, ④ A·B 등급 양호 시설물 비율, ⑤ D·E 등급 취약 시설물 비율로 구성되었다. 대구시는 이 중 ①, ③, ④, ⑤ 항목에서 1등급, ② 항목에서 2등급을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사천시

가을·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천시는 가을철 및 봄철의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4년 가을철 및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 녹지공원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집중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초동 진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과 휴일 공백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의령군

‘뭉쳐야 청춘 프로젝트’ 참가 모집

의령군은 ‘뭉쳐야 청춘 프로젝트’ 참가자를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뭉쳐야 청춘 프로젝트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가치·특성·이해 향상과 상호 교류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의령군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11월 10일과 16일 개최 예정인 이 행사는 청춘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관광지 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기장군, ‘부산국제수산물EXPO’서 수산물 홍보·유통판로 개척 지원

22개국 364개사, 1062개 부스 운영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 참가
영세 업체 대표상품 전시·홍보

부산 기장군은 오늘부터 8일까지 해운대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부산국제수산물EXPO(BISF E 2024)’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벅스코·한국수산물무역협회·수협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수산물 전문 엑스포다. 22개국 364개사가 참여하며 1062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기장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해 독립 부스를 운영한다.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기장의 우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유통 판로 개

척 지원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변어촌장터’가 공동 참가 형식으로 함께한다.

또 기장군 부스에서는 ‘기장 건어물 탐방기: 숨은 보석들’이라는 주제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박람회 참가하지 못한 지역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의 대표 상품 전시와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EXPO에서 기장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다양한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를 소개해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확보

지역의료 격차해소 본격화

하동군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안에서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진행 설계비가 확보되면서 군민을 위한 의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내 취약한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

2022년 12월 전문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의료원 설립을 위

한 지역 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으나, 사업비 과다 등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진행 설계 용역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시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동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최후보루로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군의회를 설득함으로써 예산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렸다.

/강진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15만명 방문

작년비 관광객 33.3% 늘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린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에 관광객 15만명이 몰리며 대한민국 가을 축제의 대명사를 여실히 증명했다.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년보다 하루 짧은 9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14만7,688명으로 작년 11만763명보다 33.3%나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축제장에 입점한 지역

음식관과 농특산물, 노을장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역시 전년보다 무려 107%, 두 배 이상 경종 뛰어올랐다. 음식관은 전년 1억3,300여만 원에서 2억9,100여만 원으로, 농특산물은 전년 2,100여만 원에서 4,800여만 원으로, 노을장은 1,300여만 원에서 3,6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축제장뿐만 아니라 강진읍내 상권도 함께 호황을 누렸다. 강진 골목상권 이벤트에 군민과 관광객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고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통한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강진(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등 참여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본격 조성된다.

울산시는 5일 시장실에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 예정인 반딧불이 에너지(노르웨이), 해울이해상풍력발전 1·2·3(덴마크), KF Wind(스페인·노르웨이),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 1·2·3호(영국·프랑스·한국)가 참여했다.

반딧불이에너지는 약 229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비롯한 총

5조7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앞바다 약 70km 지점에 75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약 13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KF Wind는 약 485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함께 총 7조5000억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1125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은 약 425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12조원을 들여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03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